

식약처장,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3일 국내 재생원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삼양에코테크(경기도 시흥시 소재)를 방문해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재생원료 제조업체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중동 전쟁으로 원료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생원료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조 현장을 확인하고, 재생원료 제조·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음료류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사용 시에 재생원료를 10%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최근 중동 정세로 페트 원료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생원료가 중요한 대체 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뿐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며, “PP 재생원료도 신속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상담 등 규제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건호 삼양에코테크 대표는 “재생원료의 활용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업계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안전한 재생원료 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재생원료가 원활히 제조·사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	책임자	과 장	엄미옥 (043-719-2501)
		담당자	연구관	김형일 (043-719-2504)
담당 부서 <협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	책임자	과 장	최윤주 (043-719-4351)
		담당자	연구관	최시원 (043-719-4353)